

## 새내기 간호사 지켜준 힘 '자랑스러운 딸'

병원에서 신입간호사 부모 초청행사 마련  
일터 둘러본 어머니, 걱정 보다 딸 자랑 늘어

직장을 다니는지,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선배들은 어떤지 궁금해하곤 하셨는데, 직접 병원을 둘러보고 가신 후에는 우려보다 자랑이 느꼈다. 나의 직장과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더욱더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3개월의 교육과정이 끝나고 혼자 업무를 맡게 됐다. 부담감이 과도처럼 밀려왔다. '과연 내가 혼자서 환자들을 간호할 수 있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섰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힘에 부치긴 하지만 부모님처럼 큰 배움목이 돼주는 프리센터 선생님과 일사동기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해내고 있다. 옆에서 성장을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는 프리센터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힘들 때 서로 응원해주는 동기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매력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응급실에 찾아오는 환자들은 모두 제각기의 이유를 가지고 내원한다. 시간이 지나고 노력이 더해지면 환자를 돌봄에 있어 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길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조금씩 경험해나가고 있다. 물론 앞으로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더욱더 성장해 있을 나를 기대하며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학창시절의 수많은 시간과 노력들, 해운대백병원의 신입간호사로서 부모님의 자부심이 된 그 순간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나이팅게일의 명언 '천사는 아름다운 꽃을 터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고뇌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존재'를 되새겨본다.

응급실 간호사로서 뜨거운 기습과 차가운 이성을 갖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오늘도 나는 아름다운 도전을 할 것이다.



황세원 간호사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응급실

## 2018년 인권교육 '간호사, 함께가요' 실시

대한간호협회는 2018년 인권교육 '간호사, 함께가요'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간호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로그램	With you가 있어야 Me too가 존재한다
강 사	순경이(순경이 관계교육연구소 대표)
일 시	2018년 8월 29일(수) 15:00~17:00
장 소	대한간호협회 대강당
인 원	130명(선착순 마감)
교 육 비	없음
신청기간	2018년 8월 6일(월)~8월 27일(월)

\* 본 인권교육은 의료인 필수과목 이수로 인정됩니다.

\* 신청방법 : KNA에듀센터(edu.kna.or.kr) 개인회원 로그인 → 오프라인 RN교육 → 오프라인 필수교육에서 해당 프로그램명 검색 → 신청

### 의료인 면허신고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등을 면허 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면허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

### 2018년 면허신고 대상

- 2014년 12월 31일 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12 ~ 2014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15년 면허 취득자
- 2015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 신고기간

2018. 1. 1. ~ 2018. 12. 31.

### 면허신고 방법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해야 하며, 2017년까지 보수교육 이수내역이 필요합니다.

사유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신청 후 신고 가능하오니 면제 및 유예 관련내용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도간호사회 간호사 역량강화 세미나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회장 송월숙)는 간호사 역량강화 세미나를 7월 21일 제주벤처마루 베록담홀에서 개최했다. 간호사 1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문간분 노무법인 행복한 일 대표가 '태움을 넘어 존중으로' 주제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했다. 문간분 대표는 언론에 비친 간호문화, 우리나라 성희롱 실태, 직장 내 성희롱 개념, 성희롱 관련 법과 규율체계, 주요 판례와 재결례, 성희롱 예방과 존중 일터 만들기 등에 대해 강연했다.

송월숙 회장은 "간호현장에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면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이 차질 없이 실현되도록 정책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간호사회에서는 오는 9월에 간호정책아카데미, 11월에 학술강연 및 간호연구발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ung@

## 보건복지부 국립병원 간호관리자 워크숍

보건복지부 소속 9개 국립병원 간호관리자들이 워크숍을 열고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간호과 주관으로 7월 19~20일 양일에 걸쳐 열렸다.



국립병원 간호관리자 워크숍은 지난해 처음 5개 국립정신병원을 대상으로 간호 행정·교육·연구·실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시작됐다. 올해부터 9개 국립병원 전체로 확장해 운영하게 됐다.

특히 올해 워크숍에서는 '국립병원 간호정책사업 추진 TFT'를 구성해 간호사 충원 및 직급 향상, 간호사 처우개선, 간호부서 직제 개편 등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실행방안을 모색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

보건복지부 내 간호정책 전담부서 신설 등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 9개 국립병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간호과장 송영록), 국립니주병원(간호과장 정경아), 국립부곡병원(간호과장 신은), 국립춘천병원(간호과장 이태숙), 국립공주병원(간호과장 최재순), 국립소록도병원(간호과장 김선옥), 국립마산병원(간호과장 변현주), 국립목포병원(간호과장 김완숙) 등이다.

정규숙 기자 ksung@

## 개시판

### 서울시간호사회 서울간호학술상 공모

서울시간호사회(회장 박인숙)가 '제11회 서울간호학술상'을 8월 21일 까지 공모한다. 2018년도 학회지 미발표 석·박사 학위논문 또는 2018년도 국내외 학술지 게재 및 게재예정 논문 대상.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모두 2018년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이면서, 책임연구자는 서울시간호사회 회원이어야 한다. 대상 1편(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3편(각 70만원), 우수상 5편(각 50만원), 장려상 5편(각 30만원)을 선정해 시상. 10월 16일 열리는 서울간호학술대회에서 시상식 및 논문발표, 구비서류 홈페이지(www.seoulnurse.or.kr) 공

지사항 참조. 02)853-5497.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매뉴얼 개정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개정·보급했다. 이번에 개정된 매뉴얼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의무, 피해자 보호, 불리한 처우 금지 구체화, 비밀누설금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강화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주요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판단기준 △사업주, 관리자, 피해자, 행위자, 동료, 조력자 등 대상별 성희롱 예방 및 대응방법 △분쟁 해결 및 2차 피해 예방 △예방 교육 표준 가이드라인 등이다. 매뉴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l.go.kr)→정보공개→자주 찾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여성암 환자의 자녀 위한 간호중재 필요

### 분노, 죄책감, 불안, 책임감 등 스트레스 겪어

"어머니가 암에 걸린 자녀들은 분노, 죄책감, 불안, 책임감 등과 같은 스트레스를 겪으며 힘들어하기 때문에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이는 부모자녀건강학회가 개최한 '여성암 자녀의 마음건강 돌보기' 주제 학술대회에서 제시됐다.

'어머니의 암을 경험하는 자녀의 스트레스' 주제로 발표한 오현주 이대목동병원 수간호사는 "여성암 환자들이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을 보며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면서 "연구결과 아이들은 암에 걸린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을 위한 적절한 간호중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스내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데 대한 '분노' △자신의 잘못으로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죄책감' △행임치료로 탈모 등 외모의 변화를 겪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 △어머니가 없을 수도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 △치료기간 동안 자신이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아내가 걱정할까봐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사실 '감추기'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암 자녀의 마음건강 돌보기' 주제로 강연한 박기정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건강 교수는 "여성암 환자들이 암에 걸렸을 때는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실제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암환자 자녀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위주로 동화책 내용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동화책에서는 '암은 감기와 다르며, 뾰뽀를 해도 옮기지 않아요' '나쁜 세포가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암' '주사 여려 대를 오랫동안 맞아야 해요' '엄마의 머리카락은 치료가 끝나면 다시 자란답니다' '무섭다고 말하고, 울어도 괜찮아요'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있다.

최수정 기자 sjchoi@

### 보수교육 프로그램 정보안내

###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edu.kna.or.kr

## 2018년 온라인 간호사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 2차 재공고

대한간호협회는 2018년 온라인 간호사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팀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 및 전문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간. 담도, 체장의 내·외과적 치료와 간호	소아청소년암환자 간호
간호사를 위한 입상해부생리	임상간호연구방법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환자 간호	장기이식환자 간호
비뇨기계환자 간호	프리센터 역량강화교육

\* 주제별 달일 응모팀 접수 시 해당 팀은 유찰 처리함

●첨기방법 : 개발자는 여러 주제에 대해 중복 지원이 불가함

●개별 비 : 8시간 기준 3,000만원(VAT 포함)

### 개발책임자 신청자격

- 간호계 :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에 한함
  - 간호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 의료기관 소속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석사학위 소지자(팀장급 이상)
- 비간호계(의료인) : 간호계 1인이 공동개발책임자로 구성되어야 함
  - 의과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제출서류 : 온라인 간호사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신청서, 자가점검표, 최종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신청미감 : 2018년 8월 27일(월), 이메일 도착분(서명날인 기재)

●제출처 : eduson@koreanurse.or.kr (02-2206-1911)

※ 자세한 사항은 KNA에듀센터 홈페이지(edu.kna.or.kr) 참고

###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자

구분	해당사유	증빙서류	비고
보수 교육 면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li> <li>■ 신규 면허 취득자</li> </ul>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호학사 학위취득을 위하여 학습 중인 자</li> <li>- 출산 후 육아휴직 중인 자 *</li> <li>- 군복무자 *</li> </ul> </li> </ul>	면허증 또는 면허증명서	
보수 교육 유예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연도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직자</li> <li>- 퇴직 및 미취업자</li> <li>- 교수 및 연구원</li> <li>- 일반·행정기관 소속자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li> <li>- 노조전임자</li> <li>- 해외체류자</li> </ul> </li> <li>■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복무자 *</li> <li>- 입원 또는 질병휴직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적증명서</li> <li>임신확인서</li> <li>병적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 후 육아휴직 중인 자 및 군복무자는 2018.1.1부터 면제자로 적용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직자</li> <li>■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li> <li>■ 재직증명서 및 직무기술서</li> <li>■ 발령확인서</li> <li>■ 출입국사실확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적증명서</li> <li>■ 진단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복무자는 2017년까지 유예에 해당함</li> </ul>